

민주 “김건희 뉴욕대 경력 ‘견학’ 수준”

일주일 간 걸 학력으로 볼 수 있다 사과 진정성 없어 ‘윤로남발’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 해명이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김씨가 과거 이력서에 기재한 미국 뉴욕대(NYU) 연수 경력이 ‘완전 허위’라는 주장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정식 학력으로 볼 수 없는 ‘견학’ 수준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씨의 서울대 글로벌 리더(GLA) 과정 일환으로 알려진 NYU 연수 경력에 대해 “4, 5일 정도 가서 강의받는 식이었는데 안양대 (이력서) 보시면 학

력란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현 대변인은 “일주일 갔다 온 것을 학력으로 볼 수 있느냐”며 “최고위 과정 같은 것을 학력란에 쓰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교수님들과 특강 관련 기업체 방문, 이런 형태로 꾸러진 투어 코스 있다. 견학 코스를 밟은 것”이라며 “(보통) 최고위 과정의 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떼 경력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김씨는 ‘4주 교정실습을 정교사 근무’로 부풀리고, ‘삼성플라자 전시를 국내 최대 미술관인 삼성미술관 전시로 둔갑’시키고, ‘국내 대학 6개월 지도자 과정 일부인 방문 프로그램을 뉴욕대 연수’로 허위 작성했다”며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윤 후

보의 해명을 ‘내로남불’로 규정하며, 사과 역시 진정성이 없는 ‘썩은 사과’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과거 신장아 전 교수 (학력위조) 사건도 윤 후보가 파견 검사로서 직접 수사했다”며 “윤 후보의 이런 이중 잣대가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현 대변인은 “윤 후보가 대선 출마한 명분이 정의와 공정, 상식이었다”며 “윤로남발”이라고 일갈했다.

민병선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미루고 미루다 너무 미룬 사과를 했다. 사과가 너무 오래되면 썩는다. 썩은 사과가 될 수 있다”고 비꼬았다.

박 대변인은 “윤 후보는 입만 열면 기획, 의도, 가짜뉴스 타령만 한다”며 “사과의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신지에 영입 갈등 ‘시끌’...尹선대위 난맥상 분출

이준석-조수진, 비공개회의서 고성 하태경 “젠더갈등 격화 영입 반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대위가 이달 초 내용을 불합하고 공식 출범했지만 내부 마찰음이 표출되고 있다. 영입 인사나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이 공개 표출되는 것은 물론 지도부내에서 지휘 체계를 둘러싼 설전까지 벌어지면서다.

우선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신지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킹 대표가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20일 전격 합류하면서 당내 이견이 분출됐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신 수석부위원장 영입을 직접 추진했고 윤석열 대선 후보도 “정권교체 생각이 같다면 함께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번 영입이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하태경 의원은 SNS에서 “젠더 갈등을 격화시키는 페미니스트 신지에 영입을 반대한다”며 “젠더 갈등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으로, 지금 페미니즘은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잃어버린 반(反)성평등주의의 대상으로 변질됐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는 인터뷰에서 신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만약 (의견이) 충돌한다면 당 대표 의견이 우선한다”며 “신 위원이 본인이나 하던 주장을 지속하려고 한다면 강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선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이 정면충돌하며 당내 갈등을 드러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한 당의 대응 기조를 논의하던 중에 지휘 체계를 놓고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인 것이다.

조 단장이 윤 후보 발언을 전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은 왜 안 도와주냐”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이 대표는 “공보단 업무나 신경 씨 딸”이라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조 단장은 “나는 후보 지지만 따르는데”고 했고, 이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이 대표)이 아니면 누구 지지를 듣는다는 것이냐”며 고성이 오갔다.

김중민 총괄선대위원장과 윤 후보는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내각제에 대해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김 위원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제에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내각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윤 후보는 “김 위원장의 오랜 소신”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개헌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국힘, 당내 위기감 고조 김건희 의혹 추가 사과 시사

“네거티브 중단” 국면 전환 나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가 20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추가 사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시에 김씨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현 정부 실정과 이재명 후보의 결점을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김중민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가 지난 17일 부인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그 사과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면 저희 당은 겸허하게 거기 대해 순응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역시 “선대위 차

원에서 사실 검증은 진행 중이고, 일부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과장 또는 허위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최근 상황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지점이 있다면 선대위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앞서 한 차례 사과했음에도 ‘대리 사과’, ‘불충분한 사과’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사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주춤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오차범위 내이기 하지만 역전 당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만큼 당내 위기감이 고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민주당에 ‘네거티브 중

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두고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 각 후보가 어떤 주장을 내걸고 경쟁할지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은 이렇게 선거를 네거티브 흑화전으로 만든 것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공보선대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덮고 이재명 후보의 전과를 비호해 자질 등 여러 문제점이 많다 보니 민주당이 고도의 전략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상습도박·성매매 의혹을 받는 이재명 후보 장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김 위원장의 ‘네거티브 자제’ 당부에 따라 고발 일정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큐브 정책플랫폼’ 출범식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출범식을 기념해 기념사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송영길 “尹, 준비 안됐는데도 저런 지지도...민주당 반성”

“이 후보도 반성하고 있어 저도 겸허하게 우리 잘못 반성”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우리의 절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은 라디오로 진행된 선대위 해외위원회 발대식 인사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둔 듯 “정말 준비 안 된 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지지도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반성하고 있다”며 “저도 겸허하게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을 대해서도 세계 정책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등에서 차별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른바 ‘반성 모드’를 통해 이탈한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제가 5월에 당 대표가 된 이래 수많은 반대가 있었고 청와대의 반대도 있었지만, 종부세 (과세표준) 9억을 11억으로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을 많이 때리느냐”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나마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그때 수많은 당내 반대도 있었지만, 세 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토론을 통해서 슬기로운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이 후보의 지시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해 사실상 내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동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호남 민심 구애 22~24일 전남·북 순회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는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과 전남 지역을 방문해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선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목포를 방문한 지 38일 만이다.

조수진 공보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전북과 전남을 방문한다”며 “전북 완주에서 시작해 전남 여수에서 마무리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22일 첫날엔 전주에서 잔다”며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 계승을 약속하는 등 호남 민심에 각별히 공들여온 윤 후보는 이번 방문을 통해 “호남 출대는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강기정 ‘더큐브정책 플랫폼’ 비전 발표

광주 미래 리더 덕목 추진력·공정성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싱크탱크인 더큐브 정책연구소가 정책플랫폼을 출범하고 ‘더 큰 광주, 그랜드 비전’을 발표했다.

더큐브정책연구소는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다양한 분야의 20~40대 전문가와 교수, 연구진이 참여한 ‘더큐브 정책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 전 수석은 광주시민 12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주 미래 인덱스(In-depth·심층)’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래 광주의 리더가 갖춰야할 덕목으로 추진력(34%), 공정성(16%), 공감력(11%)을

꼽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또 신중한 일처리(19.4%)보다는 과감한 일처리(63.2%)를 우선으로 꼽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수성향(5.8%)보다는 진보성향(58.2%)을, 경륜 있고 노련한(27.7%)보다는 새롭고 도전한(49.7%)을, 일이 먼저(25.7%)보다는 사람이 먼저(44.9%)라는 리더십 스타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급히 해결할 광주 현안으로는 ▲투자 및 기업 유치(13%) ▲군공향 이전(12%) ▲전략·미래산업 육성(11%) ▲소상공인 지원·경제활성화(9%) ▲대형쇼핑몰 유치(8%) ▲아파트 난개발 제어(7%) 순으로 제시됐다.

이날 이행과제를 도출한 ‘더 큰 광주, 그랜드 비전(안)’도 발표했다.

/최권일 기자 cki@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사람 찾음

서양순, 女, 1963년생
“새미엄마”로 부름
※ 좋은뜻으로 찾음 ※
찾는사람-최선규
연락처 H.010-3605-5000

아파트 상가 매매

2억 9,000만원

1,500세대 특점상권

- 물건: 나주 이노시티 에시앙 아파트
- 전용면적: 32.76㎡ [10P]
- 매매가: 29,000만
- 부가세: 1,100만 환급

[주]초록공간
010-6786-2600

자산매각공고

학교법인 서남학원 소유재산을 아래와 같이 일반경쟁 입찰 매각공고 합니다.

- 아 래 -

대상물건	물건소재지	지번	토지 면적(㎡)	건물 면적(㎡)	공고번호
1. 남원시 동흥동(남원면) 344-2	대지	1,286	1개동, 주차시설	5,117.9	공고 2021-13
2. 남원시 평안동(남원면) 713번지외 25필지	학교 외	400,157	17개동	69,550.4	공고 2021-28
3. 마곡시 송암동(마곡면) 347-5외 41필지	임야 외	165,029	2개동	30,030.37	공고 2021-38
4. 광주시 광산구 대신동 694-1외 21필지	임야 외	582,159.99			공고 2021-48
5. 광주시 남구 영동동 5253	임야	14,281			공고 2021-58
6. 광주시 남구 진동동 527	임야	5,058			공고 2021-68
7. 광주시 광산구 삼가동 397-1외 7필지	학교 외	23,657			공고 2021-78
8. 나주시 남평동 교촌리외 34-2외 28필지	전 외	22,106	3개동(병설유치원)	9,835.7	공고 2021-88
9. 나주시 남평동 서산리 2862, 선133	임야	104,933			공고 2021-98
계		794,702.99			114,534.37

2. 입찰방법: 방문입찰에 한함
3. 입찰공고기간: 2021. 12. 06. ~ 2022. 01. 19.
4. 입찰서 제출 마감: 2022. 01. 20.(목) 16:00 까지
※ 입찰서 제출장소: (학)서남학원 청산인사무소(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5. 개찰일시: 2022.01.21.(금) 14:00
6. 개찰장소: (학)서남학원 청산인사무소(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상기 세부 자세한 내용(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 현황도)은 학교법인 서남학원 홈페이지 http://www.seonamhw.co.kr를 참조 바람. **현 상태 매각임으로, 매수인은 매각대상 번지 내 유치권, 지상권, 점유권 등(권원의 유무)를 불문,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유치권, 지상권, 점유권 등은 이를 매수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2021. 12. 21.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
주소: (55039)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홍지서팀일)
연락처: Tel: 063) 288-8626, 8627 Fax: 063) 288-8628

산행안내
12월26일(일)
▲광주Kj산악회 12월26일(일) 강원도삼척, 덕화산1073m & 한천골트레킹산행(두타산개인), 엄주체육관04:00, 동아병원04:05,롯데백점04:10,광주역04:15,문예후문04:25,비엔주차장04:30 *다음날에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보호공고)
주식회사 성화건설(이하 “갑”)과 주식회사 대성건설(이하 “을”)은(는) 2021년 12월 20일 개회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입 중 일부인 전기공사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인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인 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재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1일
“갑” 주식회사 성화건설
광주도 안산시 단원구 방학로 141번길 75, 4층(영남동) 대표이사 심 병 택
“을” 주식회사 대성건설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로 61-14(수성동) 대표이사 정 세 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오연태(550824-XXXXXX)
· 최후주속: 광주 남구 효우루60번길 37, 201동 101호 (노·대동, 송화마을유원지) 2.오연주 (890922-XXXXXX) 광주 동구 용진길 17, 304동 1201호 (송산동, 보아재(에듀파크)) 3.오연희(850629-XXXXXX) 광주 남구 구림로(영남)길 6, 108동 2202호 (월산동, 반도유보라타워) 2021년 12월 21일
· 상속인: 1.이복순(561120-XXXXXX) 광주 남구 효우루60번길 37, 201동 101호 (노·대동, 송화마을유원지) 2.오연주 (890922-XXXXXX) 광주 동구 용진길 17, 304동 1201호 (송산동, 보아재(에듀파크)) 3.오연희(850629-XXXXXX) 광주 남구 구림로(영남)길 6, 108동 2202호 (월산동, 반도유보라타워) 2021년 12월 21일
· 신고기간: 2021. 12. 21. ~ 2022. 3. 2
· 재권선고장소: 상속인 1.이복순의 주소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들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공고를 하오니 영고 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람.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일 이후의 개장할 것으로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나 지방이 옮겨놓거나 공 사상에 발결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여수리 선44
2. 분묘가수: 13기
3. 분묘개장사유: 개간(농가주택신축),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영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매장)의 개장
5. 개장방법: -유연분묘: 총남 금산읍 추부면 서대동지 길 100 (월남사주모공원)
6. 안치기간: 안치처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종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 처: 오인환 ☎010-3622-1822
9. 신고방법: 원고(공고)일을 앞둔날 오전 10시에 관계서류
10. 기타사항: (공)기후도변동으로 동시유무장부합정

2021년 12월 21일
공고인: 오인환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당 회사는 2021년 12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바 당 회사의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2월 21일
주식회사 엠메디팜
광주광역시 남구 효곡로 209, 2층 201호(영남동) 청산인 이 현 우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광주광역시 남구 효곡로 209, 2층 201호(영남동)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